

신용보증기관, 자금난 中企 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은행권 대출 꺼리자 총력 지원 지난해 광주·전남 공급규모 4조3000억 '사상 최대'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지역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기술보증기금, 광주와 전남 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한 신용보증공급 규모는 총 4조2962억원으로 역대 보증규모 중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지난해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총 3조436억원으로 2008년(2조3119억원) 보다

31.6% 늘었다. 이는 호남영업본부의 역대 지원규모 중 가장 큰 액수다.

이 가운데 신규보증지원액은 5266억원으로 2008년보다 52.6%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의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보증공급액도 2008년보다 각각 34.5%, 37.6% 증가한 3712억원, 4282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도 지난해 신용보증규모 2457억원으로 2008년 보증액 958억원의 2.6배에 달하는 등 재단 설립 이래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남신

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규모도 2008년(923억원) 보다 2.2배 증가한 207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지원했다.

보증수혜기업도 2008년 608개에서 1만4476개로 24배 늘었다.

이처럼 신용보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용보증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보증 만기를 자동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특별 조치를 도입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은행권이 대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규모(연말 잔액 기준)는 모두 75조2535억원으로 전년 보다 49.5% 증가했다.

기관별 신용보증 규모는 신보 46조 9132억원, 기보 17조1448억원, 지역신보 11조19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 규모도 7.1%까지 늘어났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키워드 경제

선물거래는 '밭떼기 장사'

선물거래에서 '선물(先物·Futures)'은 현물거래와 대비된다. 현물거래가 현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물건을 사는 거래인데 비해,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하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거래는 농산물 매매에서 비롯됐으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겼다. 예컨대 농민이 밭에 배추씨를 뿌릴 때 중개상인에게 수확 후 배추를 팔기로 약속하고 발전체의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파는 밭떼기 장사와 같다. 농민들은 수확시점에 가격 폭락 등으

로 손해를 걱정해서 좋고 중개인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즉, 농가가 선물거래로 수확 전에 적당한 값으로 농작물을 팔아 넘기면 수확 후 시세가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당초 농작물을 주로 거래했지만, 금속·원유·주식·외환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선물거래가 확대됐다.

선물거래는 한달, 석달, 1년 뒤 인도할 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체계로 운용되기 때문에 미래 특정

시점에 매매의 특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 투기성이 높다.

잘만 하면 때돈을 번다는 점에 착안해 해외 원자재 시장에서는 늘 투기가 벌어진다. 거액의 투자용 펀딩(펀드)을 동원해 투자하는 국제 투자자들이 상품 경기 흐름을 예측해 선물매매를 벌인다. 이 때문에 상품시세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사례도 많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아파트 관리업자 경쟁입찰로 선정 국토해양부 내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나 각종 유지 보수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뽑을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지난방 포함)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 일시·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같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승강기 보수·도색·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도록 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광주고용노동청 출범 노동부가 5일 고용노동부로 새출발했다. 지난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만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도 이날 광주고용노동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정순호 청장을 비롯해 임홍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송광문 광주 북구청장, 엄홍섭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고용노동청 제공)

기업당 이자비용 1억4000만원

이자 수입의 3배 육박

기업이 경영난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채권발행을 늘린 탓에 이자 비용이 이자 수입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42조3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7180개 업체를 표본 조사해 얻은 수치다.

국세청 신고 기업이 약 30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평균 1억4100

만원을 대출 이자로 내야 했던 셈이다. 기업이 돈을 빌려 금융회사에 예치해 얻은 이자 수익은 14조8900억원이었다. 비용이 수익보다 2.85배 많은 수준이다.

이자 비용은 2005년 이자 수익의 2.77배에 달했다가 2007년 2.27배, 2008년 2.43배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급등했다. 2007년부터는 매출액 하위 10%의 소규모 기업이 통계에 포함됐다.

제조업은 비용이 수익의 꼭 3배를 기록해 2003년 3.33배 이후 가장 높았다. 제조업 가운데 대기업이 2.40배

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3.88배에 달했다.

제조업의 평균 차입 금리는 2007년 6.35%에서 2008년 6.50%로 올랐다. 지난해 6.05%로 낮아졌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차입 규모가 늘어 이자 비용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이자 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부터 이자 부담과 대출금 상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2011년형 쏘렌토R' 출시



기아차가 차량 내부를 고급화하고 신기술을 추가한 '2011년형 쏘렌토R'(사진)을 5일 출시했다.

이 모델은 내부 분위기를 좌우하는 클러스터 하우스(계기판 뒷개)에 고급 인조 가죽을 적용하고 변속기 패널에 크롬 테두리를 둘러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추돌 시 목 부상을 줄여주는 '액티브 헤드레스트'와 급제동 시 제동등을 점멸해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주는 '급제동 경보시스템(ESS)'을 전 모델에 장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레저용차량(RV)으로는 처음으로 센서가 김서림을 자동 제거해주는 '오토 디포깅 시스템'과 승차감을 개선해주는 '압력감응형 댐퍼(DFD)' 등 신기술이 적용됐다.

리모컨 램프 컨트롤 시스템과 멀티통합 토크미러 같은 편의사양도 추가됐다.

기아차는 '뮤 2.7 LPI 엔진'이 장착된 쏘렌토R LPI 모델의 연비를 기존 모델보다 4% 향상된 7.9 km

l/l 로 높였다. 가격은 2.0 디젤 2561만~3315만원, 2.2 디젤 2749만~3769만원, 2.7 LPI 2548만~2942만원, 가솔린 2492만~2887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름방학 경제캠프 오세요

韓銀 지역본부 청소년 대상 내달 3~6일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청소년에게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중학생 90여명으로 1차는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차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화폐 이야기', '청소년의 신용관

리와 합리적인 금융생활',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기법', '경제 골든벨', '한국은행 업무현장 견학', '화폐전시실 견학', '산업현장 견학'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wangju@bok.or.kr)이나 팩스(062-382-8164)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1-1109.

/윤영기기자 penfoot@

인터넷으로 우표 출력 우정본부 서비스 제공

인터넷으로 우표를 내고 우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우표 서비스제공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1884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우표가 발행된 후 126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우표출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우표는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까지 한꺼번에 인쇄가 된다.

이용방법은 먼저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입력하고 우편물에 해당하는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A4용지와 리벨용지 등에 출력해 우편물에 붙여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